

“교육위기 극복, 지자체와 협력이 핵심”

천호성 교육감, 지역소멸 대응 특위 제안 예고… 도전·창의 프로젝트 추진 위한 예산 확보도 강조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3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만 키우는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함께해야 전북교육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 교육장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의제를 먼저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천 교육감은 오는 13일 열리는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에 직접 참석해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공약 가운데 하나인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소멸 문제는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장과 단체장이 함께 연대해 학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교육이 지역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천 교육감은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예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금은 우리의 노력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3일 전북교육청 본청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전북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파라 확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부서와 각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소통해 더 많은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학생들의 창업 역량과 미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창직’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학생들이 창업뿐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창직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학기부터 추진할 도전과 창업 프로젝트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문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적극 지원”

천호성 교육감,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와 간담회

현장 의견 직접 청취,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논의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본청 5층 접견실에서 ‘교육감·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지원 방안과 상호 협력 방

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권혁)는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국내·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혁 회장을 비롯해 이시와 자문위원, 사무국장 등 10여 명의 협의회 임원진이 참석해 청소년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과 청소년 복지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청소년단체 담당교사 가정 제 재실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청소년성장지원센터 및 청소년 현장체 합학습 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권혁 회장은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유휴 공간을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설립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가칭)청소년 성장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앞으로도 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본청 5층 접견실에서 ‘교육감·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지원 방안과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인공지능 창의도전 캠프로 학생들의 미래 역량 키운다

도교육청, ‘창의융합 교육’ 성료… AI 기술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방안 설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융합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 1일 김제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에서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인공지능 창의도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Try Today, Dream Tomorrow’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해결 방안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과정으로 운영됐다.

캠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도내 28개교 학생 11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4명씩 1팀을 구성해 총 28개 팀으로 활동했으며, 중학생은 15개 팀

60명, 고등학생은 13개 팀 5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교급별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중학생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문제 해결’을, 고등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와 기후 대응’을 주제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학생들이 팀원과 협력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직접 프로그램 개발자의 역할을 체험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미래 진로 역량을 기렀다.

각 팀이 제작한 결과물과 현장 시연 발표는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 5개 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다. 우수 성과를 거둔 팀에는 사후 심화교육과 함께 대만에서 열리는 SW·AI 학생성장 글로벌캠프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날 캠프 현장을 찾아 “활활살하는 미래이지만 그 미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팀원들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를 단순히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전경.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 IB 월드스쿨 총 9곳

전주부설초·회현초 인증 획득으로 9곳으로 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부설초등학교와 군산 회현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초등학교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전북지역 IB 월드스쿨은 모두 9곳으로 늘었으며, 두 학교는 학생 주도적 탐구와 깊이 있는 배움을 실현하는 미래형 교육 모델 확산에 앞장서게 됐다.

IB PYP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과 평가를 연계해 깊이 있는 배움을 만들어가는 초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주부설초는 그동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성찰하며 탐구 중심 수업과 성장 중심 평가를 꾸준히 연구·실천해 왔다.

특히 교육부 상설 연구학교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깊이 있는 배움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교육과정과 수업에 반영해 왔다.

또한 전복수업컨설팅센터 역할을 수행하며 공개수업과 사례 나눔을 통해 학교 현장의 수업과 평가 개선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도 해왔다.

전주부설초는 IB 교육자 인증 과정인 IBEC(IB Educator Certificate)을 운영하는 전주교육대학교와 협력해 대학의 연구와 학교 현장의 실

천을 연결하고, IB 기반 수업과 평가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계획이다.

최상진 전주부설초 교장은 “이번 인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출발”이라며 “학생들의 질문과 탐구가 살아있는 교실을 만들고 학교의 경험을 교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나누겠다”고 말했다.

군산 회현초는 혁신학교와 전북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형성한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성찰하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특히 학교자율시간 과목인 ‘부부리마울’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지역사회를 탐색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마을의 문제와 가치를 찾아가는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심지영 회현초 교장은 “이번 인증은 ‘즐거움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라는 학교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배움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청렴 메시지로 청렴문화 확산

전주교육지원청, 직원 자발 참여 ‘청렴 메시지 릴레이’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청렴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청렴 메시지 릴레이’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교육지원청의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운영계획에 따라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청렴 메시지 릴레이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청렴 메시지 릴레이 챌린지’는 자택받은 부서가 청렴 메시지를 직접 손글씨로 작성해 보드판에 부착하고 다음 참여 부서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릴레이의 시작은 채선영 교육장이 맡았다. 채 교육장은 2025년 청렴 슬로건 공모 당선작인 ‘청렴의 발걸음으로, 모두 함께 걷는 전주교육’이라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며 청렴 실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어지는 2단계 ‘출근길 원픽 로비 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오전 8시40분부터 9시10분까지 청사 1층 현관에서 진행된다. 직원들은 릴레이 기간 동안 게시된 청렴 메시지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문구를 직접 선정해 투표한다.

참여 직원들의 인증사진은 청 입구 게시판에 게시되며, 최다 득표를 받은 청렴 메시지는 청사 전광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마지막 3단계는 오는 31일 진행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ESG 실천이 가능한 소재로 제작한 청렴 굿즈를 참여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 계획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직원들이 직접 쓰고 나누는 청렴 메시지를 통해 청렴이 일상 속 문화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번 청렴 메시지 릴레이가 전주교육지원청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